



중국 양로기금(국민연금), 증시 투자 허용 전망

왕양비 연구원

-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‘양로기금증시투자방법’을 2012년 1/4분기 내에 제정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현재 지방정부 및 지방세무부가 거수하고 관리하는 양로기금(즉, 국민연금)의 증시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.
 - 2011년 중국 전역에 걸친 양로기금의 계좌잔고가 2조 위안(약 343조 원)에 달하였으나, 투자지침에 따라 해당 양로기금의 투자대상은 은행예금 및 국채로 한정되었음.
 -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는 총 규모의 30%를 한도로 설정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증시에 투자 가능한 자금은 5,800억 위안(약 104조 원)에 달할 것임.
 - 양로기금 계좌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실현되기 전까지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이사회(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)에 위탁할 것으로 보임.
 - 과거 10년간 동 기금이사회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9.2%에 달함.
 - 한편, 중국 국가사회과학원은 정부가 양로기금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양로기금을 위한 전문투자기관 및 기금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.
-
- 중국 자본시장 환경의 진일보로 평가되고 있는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중국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2011년 20% 이상 하락한 중국 주가의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 - 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은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가 주가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,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남.
 - 한편, 일각에선 양로기금의 증시 투자가 예상과는 달리 빨리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, 동 소식은 시장조성자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됨.

(증권시보, 인민망, WSJ, 2/1, 등)